

전주국제영화제 코리안시네마 선정작 발표

장편 20편 · 단편 18편으로 총 38편 상영

전주국제영화제(공동집행위원장 민성욱·정준호)가 코리안시네마 선정작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 코리안시네마 상영작은 장편 20편, 단편 18편 등 총 38편이다.

올해 코리안시네마에서는 예년보다 소재가 더욱 다채로워진 6편의 다큐멘터리가 눈길을 사로잡는다. 광복 80주년을 맞는 올해, 2편의 다큐멘터리가 한일문제를 다루고 있다. 임흥순 감독의 〈기억 사위 바다〉는 항일운동가의 자손이자 제주 4·3 사건 당시 연락책이었던 김동일과 그의 웃을 소재로 관동대지진 속 일본에 의해 행해진 한국인 학살 등의 아픈 역사를 담고 있다. 재일동포 김이향 감독의 〈이방인의 텃밭〉은 재일동포의 정체성에 대해 내밀하게 이야기한다.

인류가 동물과 소수자를 인식하는 태도에 질문을 던지는 김화영 감독의 〈집에 살던 새는 모두 어디로 갔을까〉, 페미니즘 미술을 개척한 한국 대표 미술가 윤석남 작가의 이야기를 담은 윤한석 감독의 〈핑크문〉, 발달장애인 오케스트라 하트하트오케스트라에 관한 서한솔 감독의 〈하트 투 하트〉 등 다양한 소재의 다큐멘터리들도 관객과 만날 예정이다. 한국전쟁과 한국단편전쟁에서 강세를 보였던

LGBTQ 소재가 코리안시네마에서도 돋보인다. 20년 간 성적소수문화 인권연대 단체 '연분홍치마'에서 활동해온 김일란 감독의 새 다큐멘터리 〈에디 앨리스〉는 남성으로 태어나 여성으로서의 삶을 선택한 에디와 앨리스라는 두 인물을 조명한다.

극영화 중에서는 김조광수 감독의 멜로 감성 다분한 드라마 〈꿈을 꾸었다 말해요〉와 가족 구성원들이 각자 간직하던 비밀이 드러나는 이야기인 김대환 감독의 〈비밀일 수밖에〉가 LGBTQ 소재를 담고 있다.

19회 전주국제영화제 한국단편전쟁에서 〈병훈의 하루〉를 선보인 이희준 배우의 첫 장편 연출작인 〈직사각형, 삼각형〉과 〈인서트〉, 〈다섯 번째 홍추〉 등 독립영화를 통해 이름을 알린 문혜인 배우의 첫 장편 연출작 〈삼: The Adventure of 3 Joys〉, 전주국제영화제 올해의 프로그래머인 이정현 배우의 첫 연출작인 단편영화 〈꽃놀이 간다〉 등 배우 겸 감독들의 연출작도 다수 상영된다.

세월호 참사 당시 잠수사로 활동한 고 김관홍씨의 삶을 다룬 〈바다호랑이〉는 〈말아톤〉, 〈대립군〉 등의 정운철 감독의 신작이다. 다큐멘터리 〈안녕, 할부지〉 심형준 감독의 〈클리어〉는 가수이자 배우로 활동 중인 김푸름이 주연

을 맡은 다큐픽션으로, 환경의 소중함을 다루고 있다.

눈에 띄는 반가운 이름들은 전주국제영화제를 꾸준히 찾아온 '단골' 감독들이다. 고봉수 감독은 특유의 유머와 달콤쌉싸름한 감성이 두드러지는 〈굴레굴레〉로, 최창환 감독은 항공기 불시착으로 갑작스럽게 레이오버 호텔에서 하루를 보내게 된 인물들의 이야기를 담은 〈레이오버 호텔〉로 다시 전주를 찾았다. 8년 만에 돌아온 김대환 감독은 신작 〈비밀일 수밖에〉로, 두 차례 전주국제영화제 한국전쟁 대상을 받았던 신동민 감독도 새 단편영화 〈Dogs in the Sun〉로 올해 전주에서 관객과 다시 만난다.

17회와 18회 전주국제영화제 한국단편전쟁 부문에 초청됐던 백종관 감독의 신작 〈시련과 입문〉, 지난해 〈땅거미〉로 한국단편전쟁 심사위원특별상을 받은 박세영 감독의 〈저 구석 자리로 주세요〉, 전주시네마프로젝트 지원작 〈철의 꿈〉으로 2014년 베를린국제영화제에서 입상한 박경근 감독의 〈백현진씨 문명의 끝〉 등 과감하고 실험적인 시도를 보여주는 영화들도 관객을 기다리고 있다. 차정운 감독의 장편 데뷔작 〈만남의 집〉, 한지수 감독의 〈맨홀〉 등 신진 감독들의 작품도 주목받을 만하다.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는 2025년 4월 30일부터 5월 9일까지 전주 영화의거리로 비롯한 전주시 일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네모과자’ 국내외 영화제서 성과

군산문화관광재단 2024년 문화예술진흥지원사업 제작 단편영화

군산문화관광재단(이사장 김임준)의 2024년 문화예술 지원사업을 통해 제작된 단편영화 ‘네모과자’(영문명: Square Cracker)가 국내외 주요 영화제에서 연이어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며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네모과자’는 천안국제초단편영화제에서 금상을 수상하며 작품성을 인정받았고, 시카고 블로우업 아트하우스 필름 페스티벌(Blow-Up ArtHouse Filmfest, Chicago)에서 준결승작으로 선정됐다.

또한 전주국제단편영화제 비경쟁 부문, 서울한강국제영화제 본선에도 이름을 올리며 국내외 영화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영국 국제 아마추어 필름 페스티벌(British International Amateur Film Festival, www.biaff.org.uk)에서 최고 등급인 5-스타(5 Star) 분야 본선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뤘다. 특히 본 영화제 연가상(이영숙), 촬영상(김수호), 음향상(김진성) 부문에도 나란히 후보에 오르며 제작진의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영화 ‘네모과자’는 남편이 일하던 공장에서 사고가 났다는 소식을 들은 아내가 다급히 연락을 시도하지만, 다행히 초췌한 모습의 남편이 집으로 돌아와 말없이 ‘네이스’ 과자를 건네며 시작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일상 속 무언의 감정과 긴장감을 섬세하게 포착한 17분 분량의 단편영화다.

이번 작품은 드라마와 연극 무대에서 폭넓은 연기 스펙트럼을 쌓아온 배우 이영숙, 소중호, 유하영이 주연을 맡아 안정감 있는 연기를 선보였으며, 군산에서 꾸준히 영화



단편영화 ‘네모과자’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영화공동체 ‘씨네군산’(대표 김정일)이 제작을 맡았다.

연출은 이진우 감독, 프로듀서 김정일, 조감독 김성아, 미술 이수정, 촬영 김수호, 조명 김나영, 분장 김선아, 음향 김진성, 황상원 등 군산 지역의 영화인들이 함께하며 지역 기반의 창작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네모과자’는 앞으로도 국내외 다양한 영화제 출품을 이어갈 예정이며, 군산지역 영화 제작 가능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군산=이재훈 기자

남원시, 제95회 춘향제 ‘패밀리존’ 조성

남원시는 오는 4월 30일부터 5월 6일까지 7일간 남원 광한투원 및 요전면 일원에서 펼쳐지는 95회 춘향제에서 가족 단위 관광객과 청소년들을 위해 사랑의 광장 일원에 ‘패밀리존’을 조성하여 더욱 풍성한 축제 분위기를 선보일 예정이다.

패밀리존은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시설, 다양한 공연 프로그램, 푸드트럭, 편의시설 등을 조성, 시설은 4세부터 초등학생까지 연령대에 따라 구분하여 아이들이 안전하고 재미있는 체험이 가능한 에어바운스 놀이터, 찜질함을 즐길 수 있게 높



이 조절이 가능하다.

또한 전 연령대가 탈 수 있는 미니 바이킹, 신나는 음악과 함께 좌석이 회전하여 탑승자

와 관람객 모두에게 큰 웃음을 주는 디스코 광광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시설을 마련해 재밌는 추억의 시간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이외 공연 프로그램은 청소년 춤꾼들의 아름답고 화려한 댄스가 기대되는 전국청소년댄스경연대회, 다양한 밴드음악을 경험할 수 있는 전국밴드경연대회, 모두들 동심의 세계로 이끌어 줄 버블쇼,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서커스 공연 등이 펼쳐질 예정이며, 간단한 먹거리를 파는 푸드트럭 운영 및 편안한 휴식 공간을 위해 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아기를 위한 관람객의 편의를 위한 수유실을 마련하고 무더위 쉼터를 설치하여 폭염에도 대비한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립국악단, 벚꽃과 국악의 만남 ‘벚꽃음악회’ 개최

남원시립국악단은 벚꽃과 함께 풍성한 장르의 국악을 즐기는 ‘벚꽃음악회’를 4월 3일 저녁 7시 30분 요전 심수정 특설무대에서 펼친다. 벚꽃음악회는 남원시립국악단의 기획공연 ‘고·고 국악콘서트’의 일환으로, 벚꽃 만개 시기에 맞춰 아름다운 벚꽃과 국악이 어우러지는 음악회를 개최해, 요전을 찾은 남원시민·관광객들에게 낭만적인 야경에서 국악문화 향

유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한 공연이다.

공연은 총 1시간 30분 가량 진행되며, 다양한 장르의 국악 공연을 선보이기 위해 1부에는 무용, 단막극, 민요 등 전통 민속악, 2부에는 모듬북협주곡, 국악관현악, 판소리합창곡 등 퓨전 국악 공연을 선보인다.

한편 광한투원 상설공연은 야외공연 특성 상 우천시 공연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전화(063-620-5583, 6162)로 하면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문화재단, 공연활성 무대지원사업 ‘수수콘’ 예술단체 공모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최락기)은 2025 공연활성 무대지원사업-수수콘 수많은 콘서트(이하 수수콘)에 참여할 예술단체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수수콘’은 지역 예술단체의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예술인 간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창작 욕구를 충족하고 공연 기회를 확대하는 데 목적을 뒀다.

이에 따르면 이번 공모에서 총 12개 예술단체를 선정, 이 중 1팀은 장에 예술단체로 선정된다. 선정된 단체는 7월부터 10월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한벽공연장과 마당창극 야외공연장에서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실연 공간뿐만 아니라 온·오프라인 통합 홍보, 음향 및 조명 오퍼레이터, 안전 인력(1명) 등이 지원된다. 장에 예술인의 공연 기회 확대와 권리 보장을 위해 장에 예술단체 1팀을 추가 선정, 공연 시 활동 보조 인력도 함께 지원할 예정이다.



4월 3일까지 전주문화재단 누리집(공모사업)이나 전주한벽문화관 누리집(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mail@j.or.kr)로 제출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과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인자였다.



선화당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층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면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관풍각



내야